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이행실태

정 현 상*

I.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구론’이란 단어는 영국의 고전학과 경제학자 맬서스의 저서 『인구론』과는 상관없는 신조어로 ‘인문계 졸업생의 90%는 논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삼성을 포함한 몇몇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에서 이공계 출신을 80% 이상 선발하면서, 기업의 노동수요가 인문계보다는 이공계를 더 선호하는 현상을 반영한 단어이다. 이러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문계 전공 청년층에게 냉혹한 취업시장의 현실에서 정부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고자 비전공자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인문·기술 융합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서 SW 등 이공계 교육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¹⁾.

취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시절도 지난 것 같다. 한 입시업체가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학원 수는 17% 증가 했지만 일반대학원의 취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인문계 졸업생의 취업난이 대학원으로까지 이어져 이공계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과의 격차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대졸자들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고, 청년 대졸자들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이행기간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hsjung@kli.re.kr).

1) 고용노동부(2015), 『청년 절반이 SW 분야 등 이공계 교육훈련 배우겠다』, 전국 대학생 대상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보도자료

II. 최근 전공별 취업현황

[그림 1]은 중분류 전공별 졸업자 및 취업자로 2014년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²⁾. 의약계열의 의료분야 취업률이 85.5%(졸업자 비중 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체능계열의 음악 분야(졸업자 비중 1.9%)가 22.9%로서 가장 낮은 취업률로 조사되었다. 의약계열의 모든 분야³⁾와 교육계열의 유아교육(76.3%), 초등교육 분야(73.1%) 등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졸업자 수가 적고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은 직업 관련 전공 분야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계열 중등교육 분야의 36.8%란 취업률의 의미는 취업자 중에서 교직이 아닌 다른 업종에 재직중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용시험으로 채용되는 일자리에 비해 사범대학의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전체 졸업자 258,978명 중 1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계열의 경영, 경제 분야의 취업률은 57.6%로 나타났다. 졸업자 수가 만 명이상(졸업자 비중 3.9% 이상)이 되는 전공 분야 중에서 공학계열의 전기·전자 분야 취업률이 68.1%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컴퓨터·통신 분야 63.0%, 경영·경제 분야 57.6%, 사회과학 분야 51.7%, 생물·화학·환경 분야 50.6%, 언어·문학 44.9% 순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의 졸업자 비중은 전체 졸업자 대비 43.2%로 다른 계열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경영·경제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하면 취업률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졸업자 수로 보았을 때에도 경영·경제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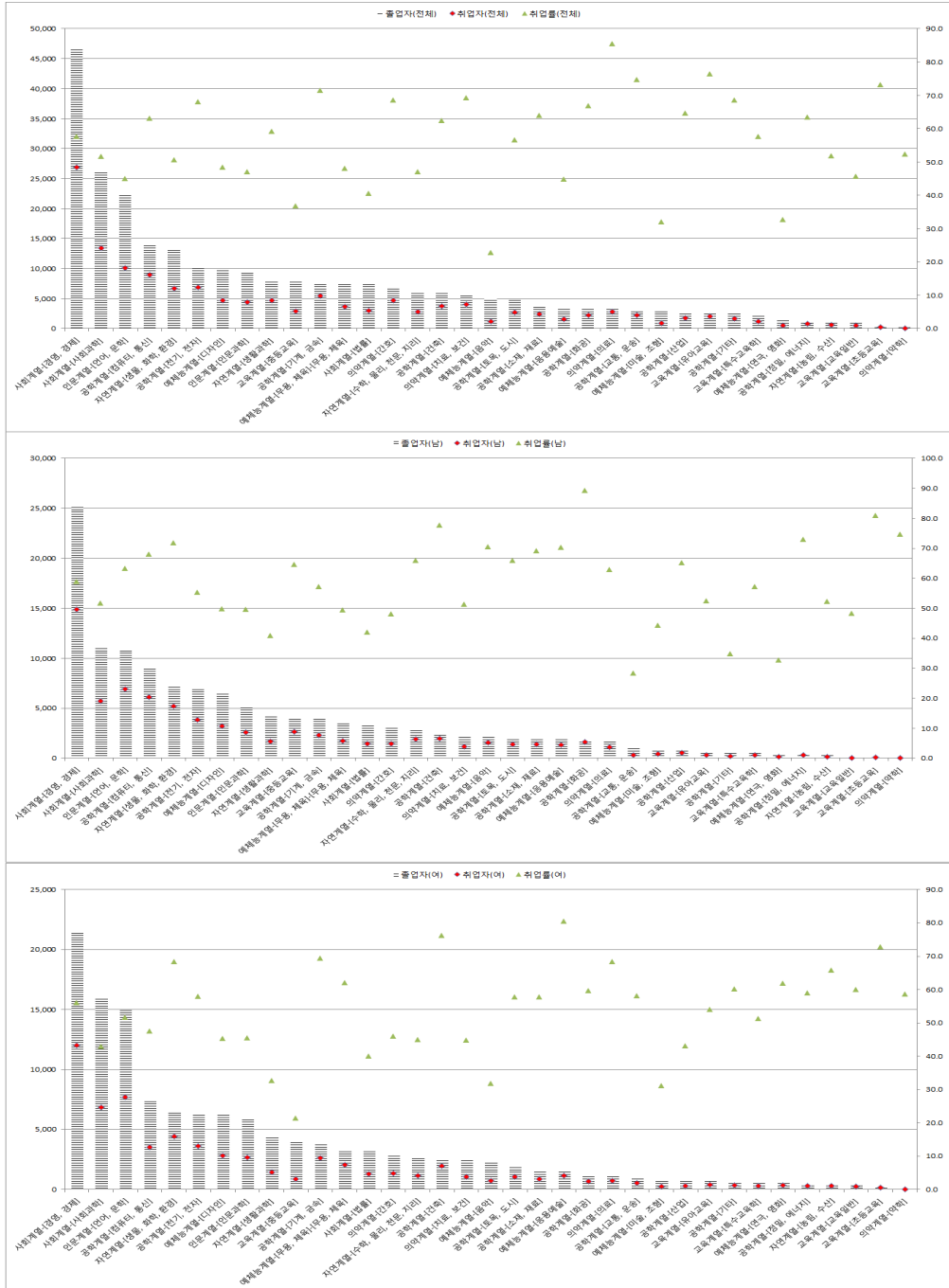
성별·중분류 전공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의약계열의 의료분야에서 취업률이 각각 89.3%,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졸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5가지 분야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기계·금속 71.8%, 전기·전자 68.1%, 컴퓨터·통신 63.3%, 경영·경제 58.8%, 사회과학 51.7%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간호 68.3%, 경영·경제 56.1%, 사회과학 51.6%, 디자인 47.5%, 언어·문학 43.0% 순으로 나타났다.

2) 본문에서는 4년제 대학 2014년 2월 졸업자(2013년 8월 졸업자 포함)를 기준으로 조사된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를 가공하였다. 여기에서 사용한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영농업종사자의 합이고 졸업자는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외국인유학생을 제외한 값이다. 취업률은 취업자 대비 졸업자의 비율로 정의하고 2014년 6월 1일 기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3) 2014년 취업률은 의료분야(85.5%), 치료·보건분야(69.3%), 간호분야(68.6%), 약학분야(52.3%) 순이다.

[그림 1] 2014년 대학교 졸업자의 전공별 취업 상황(졸업자 및 취업자(좌), 취업률(우))

(단위: 명, %)



주: 2014년 2월 졸업자 기준(2013년 8월 졸업자 포함) 4년제 대학 졸업자 대상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전공분야 전체적으로 이공계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T 관련 전공 졸업자 비중이 높은 남성 취업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이공계보다는 취업률이 낮은 인문사회계열의 졸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대졸 청년층 취업난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녀 모두 인문사회계열에서도 경영·경제 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률은 이공계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근래와 같은 취업난에 많은 대졸 청년들이 내몰려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또한, ‘인구론’과 같은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문계열의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여성의 졸업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인문계열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대졸 청년층의 취업 사정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표 1>은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전공별 취업현황이다. 공학계열의 졸업자는 총 10,579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계열 18.1%, 의약계열 15.7%, 사회계열 15.2%, 예체능계열 7.6%, 인문계열 7.3%, 교육계열 6.0%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84.7%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계열(42.9%)과 예체능계열(34.6%)은 전체 졸업자 취업률 67.2%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열에서 경영·경제 분야의 취업률은 71.5% 였는데, 특히 여성은 사회계열 평균에도 못 미치는 60.2%였지만 남성은 78.0%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취업률은 의약계열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졸업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취업률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학졸업자와 비슷하게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공학계열, 사회계열에서도 경영·경제분야에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전공계열에서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취업률을 보여 학부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대학원 졸업자에게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2013년 8월과 2014년 2월 전공별 졸업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근래의 취업난이 어떤 전공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대졸 청년층의 전공별 분포 양상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었다.

〈표 1〉 2014년 대학원 졸업자 전공별 취업 상황

(단위: 명, %)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인문계열	2,562 (7.3)	782 (3.9)	1,780 (8.9)	1,099	404	695	42.9	51.7	39.0
[언어, 문학]	938 (2.7)	216 (1.1)	722 (3.6)	265	75	190	28.3	34.7	26.3
[인문과학]	1,624 (4.6)	566 (2.8)	1,058 (5.3)	834	329	505	51.4	58.1	47.7
사회계열	5,335 (15.2)	2,973 (14.9)	2,362 (11.9)	3,654	2,260	1,394	68.5	76.0	59.0
[경영, 경제]	2,870 (8.2)	1,820 (9.1)	1,050 (5.3)	2,051	1,419	632	71.5	78.0	60.2
[사회과학]	1,949 (5.6)	790 (4.0)	1,159 (5.8)	1,227	559	668	63.0	70.8	57.6
교육계열	2,091 (6.0)	504 (2.5)	1,587 (8.0)	1,471	403	1,068	70.3	80.0	67.3
공학계열	10,579 (30.2)	8,753 (44.0)	1,826 (9.2)	7,727	6,582	1,145	73.0	75.2	62.7
[전기, 전자]	1,917 (5.5)	1,747 (8.8)	170 (0.9)	1,471	1,359	112	76.7	77.8	65.9
[컴퓨터, 통신]	1,581 (4.5)	1,387 (7.0)	194 (1.0)	1,203	1,069	134	76.1	77.1	69.1
자연계열	6,351 (18.1)	3,245 (16.3)	3,106 (15.6)	4,031	2,233	1,798	63.5	68.8	57.9
[생물, 화학, 환경]	3,885 (11.1)	2,069 (10.4)	1,816 (9.1)	2,542	1,452	1,090	65.4	70.2	60.0
의약계열	5,498 (15.7)	2,804 (14.1)	2,694 (13.5)	4,658	2,545	2,113	84.7	90.8	78.4
[의료]	3,550 (10.1)	2,202 (11.1)	1,348 (6.8)	3,173	2,074	1,099	89.4	94.2	81.5
예체능계열	2,651 (7.6)	834 (4.2)	1,817 (9.1)	918	416	502	34.6	49.9	27.6
전 체	35,067	19,895	15,172	23,558	14,843	8,715	67.2	74.6	57.4

주: 2014년 2월 졸업자 기준(2013년 8월 졸업자 포함) 일반대학원 졸업자 대상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DB연계 취업통계연보」.

Ⅲ. 인문사회계열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

이 단락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문사회계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관해서 공학계열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4년제 대학졸업자의 만나이를 고려하여 연령 분석을 22세에서 29세로 설정하였고 대학원 진학자 중 중퇴자만을 대학교 졸업자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2>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의 성별·연령그룹별 고용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다. 남성 22~25세의 경우 두 전공계열 모두에서 2003년 보다 2014년에 고용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이 공학계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문사회계열 26~29세 연령그룹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공학계열의 경우 약 80% 수준에서 고용률이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여자 또한 두 전공계열 모두에서 22~25세 고용률이 2003년에 비해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6~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2003년에 비해 근래에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전공계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여성의 졸업연령과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인문사회계열 및 공학계열의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문 사회	남 자	22~25세	68.9	65.9	62.8	65.3	61.1	66.5	63.1	51.7	54.9	49.4	56.7	51.5
		26~29세	79.5	74.9	75.0	73.8	73.2	74.1	68.9	73.7	71.9	71.9	72.5	71.2
		전체	77.9	73.6	73.5	72.9	71.8	73.1	68.1	71.0	69.5	69.4	70.6	68.9
	여 자	22~25세	74.2	69.0	67.7	66.3	66.6	66.6	67.5	63.1	68.4	62.0	63.0	64.1
		26~29세	64.1	66.7	67.4	67.7	69.9	72.3	72.1	68.5	72.7	72.6	73.0	74.3
		전체	68.5	67.6	67.5	67.1	68.5	69.9	70.3	66.4	71.1	68.9	69.5	70.3
공학	남 자	22~25세	65.4	64.3	70.4	62.4	68.1	60.4	65.1	68.5	50.3	72.2	66.1	58.8
		26~29세	80.7	82.3	82.1	79.0	76.1	77.9	76.2	76.9	79.9	80.7	80.1	79.7
		전체	78.7	80.3	80.8	76.8	75.2	75.9	74.8	76.2	76.4	79.5	78.3	76.2
	여 자	22~25세	71.8	72.7	69.9	61.8	68.4	75.4	77.8	70.3	68.5	69.8	61.3	67.2
		26~29세	53.2	70.4	69.6	73.2	73.5	72.9	76.3	74.6	74.0	70.1	72.7	78.0
		전체	62.3	71.7	69.7	67.9	71.5	73.7	76.8	73.0	72.3	70.0	68.5	73.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인문사회계열 및 공학계열 대졸자의 산업별 취업자 수

(단위: 명)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인문 사회	인문사회계열 전체	360,863	388,846	436,534	431,853	445,960	493,319
	제조	37,407	46,208	47,468	42,302	46,545	42,059
	서비스업	313,899	330,799	371,438	378,090	388,393	435,969
	도매·소매	67,820	53,928	47,394	54,745	61,460	81,524
	음식·숙박	10,389	17,677	13,621	12,397	19,192	26,919
	출판·영상·통신	28,967	22,391	23,759	21,970	25,128	45,813
	금융·보험	36,819	38,014	56,032	66,134	66,471	51,351
	전문·과학·기술	25,360	24,574	32,256	34,803	44,156	44,744
	공공행정	17,050	28,887	32,517	24,877	19,410	32,440
	교육	68,611	85,830	82,949	82,777	55,577	48,827
	보건·복지	17,401	16,805	24,721	25,279	28,827	42,102
	건설	6,023	9,119	15,478	8,694	6,967	12,392
	기타 ¹⁾	3,533	2,720	2,150	2,767	3,856	2,898
공학	공학계열 전체	262,655	243,515	258,720	248,121	247,166	208,541
	제조	72,466	70,662	62,762	70,318	59,013	57,117
	서비스업	164,300	148,143	166,690	152,521	159,818	131,288
	도매·소매	26,152	23,493	24,073	19,004	20,255	17,555
	음식·숙박	3,055	3,434	3,347	3,199	4,615	6,389
	출판·영상·통신	32,496	33,466	33,666	32,392	38,487	41,638
	금융·보험	10,273	8,782	12,633	9,766	11,584	8,658
	전문·과학·기술	29,113	19,703	35,305	35,717	40,362	23,737
	공공행정	9,426	11,231	12,529	11,937	7,665	6,431
	교육	25,690	25,121	22,037	16,940	9,203	10,226
	보건·복지	5,829	3,309	1,719	2,905	2,911	2,045
	건설	22,077	21,702	22,578	21,631	24,362	16,329
	기타 ¹⁾	3,811	3,007	6,691	3,651	3,973	3,807

주: 1) 기타에는 농림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인문사회계열의 취업난은 26~29세 보다는 22~25세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공학계열의 고용률이 성별로나 연령그룹별로 보았을 때 인문사회계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학계열의 대졸 청년층이 인문사회계열의 대졸 청년층보다 취업이 수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3>은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 대졸자들의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여준다. 인문사회계열 대졸자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비해 최근 5만 여명 가량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을 보이며 2004년에 비해 2014년에 10만 명 이상 증가한 약 4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2014년에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8만 천 명)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업은 2004년에 비해 근래에 취업자 수가 약 2.4 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공학계열의 고용률이 최근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문사회계열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는 취업자 상승폭보다 인문사회계열의 생산가능인구(졸업자) 상승폭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고, 공학계열은 취업자의 감소폭보다 공학계열 졸업자 수의 하락세4)가 더 크기 때문에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학에서의 인문사회계열 정원 증가와 더불어 재학생 수 증가가 근래의 ‘인구론’을 이끌고 있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인문사회계열 및 공학계열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문 사회	취업준비	41.8 (17.0)	47.4 (18.9)	66.5 (24.4)	76.3 (26.0)	81.4 (27.0)	90.2 (29.0)	82.8 (27.6)	93.2 (30.1)	90.4 (30.7)	91.2 (31.0)	85.6 (27.4)	82.8 (26.7)
	쉬었음	11.2 (4.5)	12.3 (4.9)	9.7 (3.6)	10.2 (3.5)	12.5 (4.2)	11.1 (3.6)	15.2 (5.1)	18.5 (6.0)	16.2 (5.5)	18.0 (6.1)	22.2 (7.1)	21.8 (7.0)
	계열전체	118.5 (48.2)	127.8 (51.0)	133.0 (48.8)	135.4 (46.2)	141.3 (46.9)	150.4 (48.3)	148.4 (49.5)	165.2 (53.3)	155.7 (52.8)	152.9 (51.9)	157.5 (50.3)	156.1 (50.3)
공학	취업준비	14.5 (13.0)	14.1 (12.4)	13.6 (11.9)	16.6 (14.3)	16.9 (15.2)	15.6 (14.0)	16.6 (13.9)	13.8 (12.1)	15.4 (12.9)	14.2 (11.7)	11.5 (9.8)	11.4 (9.3)
	쉬었음	3.5 (1.4)	4.1 (1.6)	4.7 (1.7)	6.7 (2.3)	5.2 (1.7)	5.3 (1.7)	8.2 (2.7)	5.2 (1.7)	7.1 (2.4)	7.5 (2.6)	5.5 (1.8)	6.8 (2.2)
	계열 전체	69.4 (28.2)	52.8 (21.1)	52.8 (19.4)	63.4 (21.6)	65.5 (21.7)	65.5 (21.0)	62.7 (20.9)	57.0 (18.4)	60.8 (20.6)	53.6 (18.2)	46.5 (14.9)	46.0 (14.8)
대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245.6	250.6	272.3	293.1	301.6	311.3	300.0	309.8	294.6	294.6	313.0	310.1

주: 괄호 안은 총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2014년 기준 인문사회계열의 졸업자는 전체 졸업자 대비 42.8%를 차지하며 공학계열은 23.0%를 차지하고 있다. 1981년 인문사회계열의 전체 졸업자 대비 비중은 29.3%, 공학계열은 40.1%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비경제활동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11만 8천 명에서 2014년 15만 6천명으로 31.7%가량 증가하여 대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러운 수준이다(표 4 참조). 특히 취업준비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2012년에 31.0%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근래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00년 초반에 비해 약 2배가량으로 많아졌으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문사회계열 졸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2만 2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공학계열의 비경제활동인구와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IV.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로의 이행실태와 성과

여기에서는 대학생이 첫 일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첫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대학원을 중퇴한 청년층(15~29세), 그리고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는 전공계열별로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과 취업미경험률이 나타나 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한 경우 이행기간은 '0'으로 계산하였고 취업경험이 있는 우측절단된(right censored) 경우에는 졸업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대학졸업자 전체의 첫 일자리 획득까지의 이행기간은 평균 8.0개월⁵⁾이 소요되는 것으

<표 5> 대졸자의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 분포

	졸업자 수 (천명)	이행기간						취업 미경험률
		평균 (개월)	< 0	0~2개월	3~5개월	6~11 개월	1년 이상	
인문사회계열	719.8	8.8	20.8	22.9	18.8	10.4	27.1	15.1
예체능계열	182.4	6.6	22.1	32.0	15.6	6.4	23.9	6.8
교육계열	122.3	11.9	14.0	27.9	4.9	10.3	42.9	16.3
자연계열	193.7	6.5	21.9	25.0	19.5	10.8	22.7	11.3
공학계열	273.3	7.2	35.7	17.2	16.6	7.4	23.1	12.2
의약계열	62.6	1.9	28.6	31.4	19.8	12.4	7.9	9.7
전 체	1,554.0	8.0	23.5	24.0	17.1	9.5	25.9	1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14. 5

5)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통제하지 않은 값으로 과대 계산된 것이다.

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4년 5월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로 분석한 이행기간 6.9개월 보다 1.1개월 높아진 수치이다⁶⁾.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평균 이행기간이 교육계열(11.9개월)이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8.8개월), 공학계열(7.2개월), 예체능계열(6.6개월), 자연계열(6.5개월), 의약계열(1.9개월) 순으로 직업관련 전공인 의약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졸업후 평균 6개월 이상의 이행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졸업자에서 약 46%를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의 이행기간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인문계열 전공자들의 취업대책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이행을 경험하는 대졸자의 비중이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에서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6>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⁷⁾을 사용하여 전공계열과 졸업연령⁸⁾, 성별, 휴학경험 여부, 직업교육, 취업관련 시험준비, 재학중 근로경험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청년층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이탈을 사건발생이라 정의하였고 생존시간은 이행기간을 의미하여, 이 두변수를 종속변수로 구성하여 Cox 비례위험회귀분석(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⁹⁾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대졸 청년층의 평균 졸업연령은 만 23.2세로 나타났으며 졸업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남성이 노동시장이행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다는 것인데 이는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통제하지 않아 과대계산 된 결과일 수 있다.

한편,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 의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탈출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계수 값으로 비교해보면 의약계열>예체능계열>공학계열>인문사회계열 순으로 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공계열별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취업상태로의 이

6) 이병희(2004).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4권 제4호, p. 8.

7)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의학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이나 신약이 생존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추정하는 데 흔히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관측 시점부터 연구자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존시간(survival time)이라고 정의하며 조사의 종료나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사건의 발생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절단자료(censored data)가 생기는 경우에도 일치성을 가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연령변수가 아닌 졸업연령을 모형에 포함시킨 이유는 조사시점에 첫 일자리 시작시기는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일자리 획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주는 졸업연령이 조사 당시 연령에 비해 더 유의미한 변수이다.

9) 생존시간(이행기간)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위험함수(hazard function)에 대한 특정한 가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모수적 특징이 있어 설명변수가 이행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탈이 좀 더 수월한 요즘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직업관련 전공인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 또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표 6〉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 : Cox 비례위험회귀분석

	표본특성		모형1		모형2	
	평균	표준편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졸업연령	23.208	1.983	0.110 ***	0.038	0.131 ***	0.032
남성[여성]	0.358	0.480	-0.473 ***	0.116	-0.373 *	0.093
도시[시부]	0.880	0.325	-0.014	0.109	0.057	0.096
편입학[없음]	0.036	0.186	0.028	0.192	-0.077	0.188
전공[인문사회계열]	0.460	0.499				
예체능계열	0.112	0.316	0.216 *	0.113	0.193 *	0.101
교육계열	0.085	0.278	0.045	0.124	-0.153	0.119
자연계열	0.126	0.332	0.091	0.112	0.051	0.101
공학계열	0.170	0.375	0.116 *	0.121	0.043 *	0.098
의약계열	0.048	0.213	0.403 **	0.169	0.339 **	0.163
휴학경험[없음]	0.337	0.473	-0.058	0.100		
취업시험, 자격시험 어학연수, 인턴경험 등	0.206	0.405			-0.192 **	0.095
가족적 이유, 금전적 이유	0.047	0.211			0.005	0.158
직업교육[없음]	0.350	0.477	-0.048 *	0.078		
재학/휴학중	0.197	0.398			0.147 *	0.086
졸업/중퇴후	0.094	0.292			-0.235 **	0.110
재학/휴학, 졸업/중퇴	0.060	0.237			-0.241 *	0.136
취업관련 시험준비[없음]	0.249	0.433	-0.755 ***	0.098		
일반기업	0.078	0.269			-0.784 ***	0.154
공무원	0.078	0.268			-1.032 ***	0.147
재학중 근로경험[없음]	0.649	0.477	0.333 ***	0.078		
전일제 취업	0.095	0.293			0.517 ***	0.131
시간제 취업	0.448	0.497			0.290 ***	0.072
인턴(기업인턴 등)	0.043	0.203			0.033	0.189
학교 현장실습	0.046	0.209			0.291 *	0.162
정부 지원 직장체험	0.011	0.105			0.662 *	0.343
-2 log likelihood			12660.630		9578.559	
샘플수			1,621			

주 : []는 기준변수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14. 5.

전체 대졸청년층의 약 35% 가량이 직업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모형1에서 직업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첫 일자리를 신속하게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계수값으로만 비교했을 때 직업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 직업교육을 재학 혹은 휴학중 경험한 사람, 졸업 이후에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 졸업이전과 이후 모두 경험한 사람 순으로 노동시장 탈출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졸업 이후 직업교육을 받는 청년층의 경우 대체로 노동시장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이 활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 이후 직업훈련이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표본의 25% 가량이 취업 관련 시험 준비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취업시험 준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첫 일자리로의 탈출률을 늦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체 준비와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시험 준비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턴을 제외한 재학 중 근로경험이 첫 일자리로의 탈출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시간제 취업이나 정부 지원 직장 체험을 경험했던 대졸자들이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학 중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대부분이 시간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고 인턴이나, 학교 현장실습, 정부 지원 직장체험 등은 표본이 너무 적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졸업자들이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획득한 첫 일자리의 질은 어떠할까? 최근 들어 입사 후 1~3년 사이에 퇴사자 혹은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첫 직장이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시장 이행기간이 짧다고 하여 반드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사용한 설명변수에 이행기간과 이행기간 제곱을 포함하여 첫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첫 일자리의 질을 상용직과 고용주를 포함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임시, 일용직,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종속변수 더미로 취급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첫 직장이 현재 직장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종사상 지위를 묻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고용형태까지도 파악가능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는 상용적이면서 ‘계약기간 1년 초과근로자’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에 응답한 자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앞의 분석에서 졸업연령이 높을수록 이행기간이 유의하게 짧았지만 안정적 일자리를 얻는 것에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은 유의하게 길게 나타났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 이행한다고 해서 첫 번째 직장이

〈표 7〉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로짓(Logit) 분석

	모형1		모형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졸업연령	0.027	0.069	0.037	0.056
남성[여성]	0.458 **	0.228	0.453 ***	0.173
도시[시부]	0.368 *	0.212	0.037	0.177
편입학[없음]	0.210	0.329	-0.174	0.296
전공[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0.954 ***	0.226	-0.813 ***	0.190
교육계열	0.680 ***	0.238	0.267	0.221
자연계열	0.451 **	0.209	0.209	0.179
공학계열	0.424 **	0.217	0.385 **	0.173
의약계열	0.988 ***	0.303	0.549 *	0.282
휴학경험[없음]	0.347 **	0.180		
취업시험, 자격시험 어학연수, 인턴경험 등			0.329 **	0.163
가족적이유, 금전적 이유			-0.285	0.283
직업교육[없음]	0.015	0.145		
재학/휴학중			0.114	0.152
졸업/중퇴후			-0.476	0.216
재학/휴학, 졸업/중퇴			0.086	0.258
취업관련 시험준비[없음]	-1.702 ***	0.210		
일반기업			-1.693 ***	0.323
공무원			-1.613 ***	0.331
재학중 근로경험[없음]	-0.202	0.147		
전일제 취업			-0.072	0.217
시간제 취업			-0.368 ***	0.133
인턴(기업인턴 등)			0.396	0.318
학교 현장실습			0.126	0.284
정부 지원 직장체험			-0.506	0.529
첫일자리 이행기간	-0.011	0.014	-0.006	0.012
첫일자리 이행기간 ²	0.000	0.000	0.000	0.000
상수항	-0.827	0.301	-0.678	0.207
-2 log likelihood	1323.286		1762.048	
샘플수	1,389			

주: []는 기준변수이며,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14. 5.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공계열별로 살펴보면 모형1에서는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형2에서도 공학과 의학계열 졸업생들의 직장안정성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학과 의약계열은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행기간도 짧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탈출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예체능계열은 이행기간은 상대적으로 신속할 수 있으나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학기간중 병역을 제외한 휴학경험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시험 준비나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인턴경험을 위해 휴학했던 사람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에서 살펴본 것처럼 근래 들어 취업연령이 20대 후반에 집중된 것은 이러한 휴학경험이 졸업을 늦추기는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의 탈출을 위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한 형태로의 선행요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직업교육은 이행기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자리의 질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관련 시험준비는 이행기간도 늦추지만 일자리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전문 자격증 시험준비는 높아진 경쟁률 덕에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시험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행기간 또한 긴 것은 당연하겠으나 일자리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시험준비생들이 최종 합격하는 것보다 중도포기하거나 시험준비 중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더 많음을 시사한다.

한편 재학 중 근로경험이 이행기간을 유의하게 단축시키기는 하지만 시간제 취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와 같은 일자리 경험은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에는 영향을 미쳐 이행기간을 단축시킬 수 는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나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와는 상관없는 형태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있어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병희(2004)는 첫 일자리 이행기간의 장기화를 안정적인 일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탐색적 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4년제 대졸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졸업자는 인문사회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노동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 및 노동시장 실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공학계열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신규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률을 살펴보면, 의약계열과 초등교육 분야와 같이 직업관련 전공분야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과 직결되어 있는 전공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공에서 취업난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대졸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는 인문사회계열의 취업난이 심각했으며 그중에서도 어학관련 학과와 중등교육 분야 전공자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별로 보면 어학계열과 교육계열 졸업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다 보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게 나타났고 취업률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높은 공학계열에서 남성 졸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자의 전공별 취업률을 보더라도 대학 졸업자들의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년층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20대 중반 이전에 취업하는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22~25세 고용률이 70%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60%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6-29세 여성의 고용률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여성의 졸업연령과 취업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인문사회계열은 고용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문사회계열의 노동공급 과잉이 근래의 ‘인구론’을 이끌고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취업난이 청년층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내몰고 있어 2000년대 들어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문사회계열 졸업자 중에서 어떠한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 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이행기간과 일자리의 안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졸업 후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빨랐고, 예체능계열과 공학계열, 의약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더 빨랐다.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취업 관련 시험 준비경험이 있는 사람, 재학중 근로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동시장 이행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행기간은 짧지만 예체능계열 졸업자들이 안정적인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는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교육 경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경험, 특히 스펙을 쌓는 것과 관련된 휴학경험이 있었던 청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행기간은 길게 나타났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에는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준비와 같은 취업 관련 취업 준비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이행기간과 일자리의 질 모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게 IT, S/W 직업훈련을 통해 인문계 취업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는 대기업 중심으로 공학도에 대한 노동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몇몇 설문조사에서 인문계 학생들도 공학 관련 교육훈련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공학 관련 지식을 갖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터이고 고용률 또한 공학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직업교육 경험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기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과는 무관하였다. 그러나 공학계열 전공자들과 이공계 교육훈련을 받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기업들이 능력에 입각하여 기업들이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기업들이 두 집단을 어떤 차별 없이 바라본다고 해도 대학 4년 동안의 이공계 교육을 받은 사람과 단기적인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간에 능력 차이가 없을지는 미지수이다.

대학의 난립과 학과의 무작위적 신설 등으로 인한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포화상태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로 하여금 체계적인 이공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이 학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4]**

<참고문헌>

- 이병희(2004),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4호, pp.1~20.
고용노동부(2015), 「청년 절반이 SW 분야 등 이공계 교육훈련 배우겠다」, 전국 대학생 대상 이공계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매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2014).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연보』.